

최첨단 부유식 태양광발전기 등장

섬유강화 복합소재 사용 경량화 ... 내식성 우수해 해상용으로 적합

섬유강화 복합소재를 사용해 경량화를 실현한 부유식 태양광발전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.

경상남도 통영시는 12월15일 북신동 북신만 앞 공유수면에 부유식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.

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부유식 발전기는 가로, 세로 7m에 높이 2.3m로 시간당 3.68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.

특히, 섬유강화 복합재를 사용해 내식성이 우수하고 무게도 가벼운 것이 장점으로 해상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통영시는 1대의 부유식 발전기를 설치해 시범운영한 후 효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다수의 발전기를 연결해 고용량 발전소를 만들 계획이다.

통영시 관계자는 “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주변 양식장은 물론 도서벽지 민가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2/15>